

F. UND

PEOPLE & CONTEMPORARY LIFESTYLE

ISSUE
#62

10
OCTOBER
2015

People

HARRYBIGBUTTON
NA, HEEKYUNG
PARK, CHULMIN
KIM, SEULKI
DEAN

Special Issue

VENDING MACHINE

Fantastic CD Inside!

TYLER.

THE CREATOR

www.foundmag.co.kr
ISSN 2093-6915
5000 Won

10



9 772093 691007

류하완

Flashback

editor_서옥선 image_롯데갤러리 영등포점

01 Flashback, 162×70cm, Mixed Media on Canvas, 2015
02 Landscape, 162.2×112.1cm, Mixed Media on Canvas, 2015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풍경, 류하완은 추상적으로 보이는 프레임 안에 규격화된 도시의 삶, 문명 세계에 속한 삶의 행태를 담아낸다. 류하완의 작품을 둘러보던 중 'Landscape'와 'Flashback' 앞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한참을 들여다보며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매력과 힘을 가진 작품들이다. 타일 같기도 하고, 벽지 무늬 같기도 한 그의 작품 안에는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의 공간 안에서 매일을 반복하는 도시인의 삶이 녹아들어있다. 류하완은 마스킹 테이프와 물감, 칼을 이용해 그만의 사각형 세계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정형의 사각형과 부정형의 물감 얼룩이 공존하는 작품은 이 시대의 풍경화다. [E]



Ugo Rondinone

Human Nature

editor_서옥선 image_국제갤러리



01 전시 전경. Photo by Keith Park
02 Summer Moon, 2013~14, Cast Aluminum and White Paint, 580×500×600cm, Photo by Keith Park

스위스 출신의 작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가 다섯 개로 구성된 청석 조각 연작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그의 전시에서는 '참견쟁이', '변태', '관찰자', '호기심쟁이', '순종자'로 이름 붙여진 다섯 개의 거대한 석상을 만날 수 있다. 스톤헨지를 연상시키는 우고 론디노네의 석상들은 그가 살고 있는 뉴욕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석들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크기의 석상들 사이를 시간을 들여 배회해 보기를 권한다. [E]